9월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반등

4.0 포인트 올라…가계수입·소비지출 전망 상승

임금수준은 그대로…생활형편·가계저축 등 하락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월 반등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역 6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4.0포인트 상승한 105.7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101.7로 전월대비 2.5포인트 올랐다. 8월의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하락한 101.7을 기록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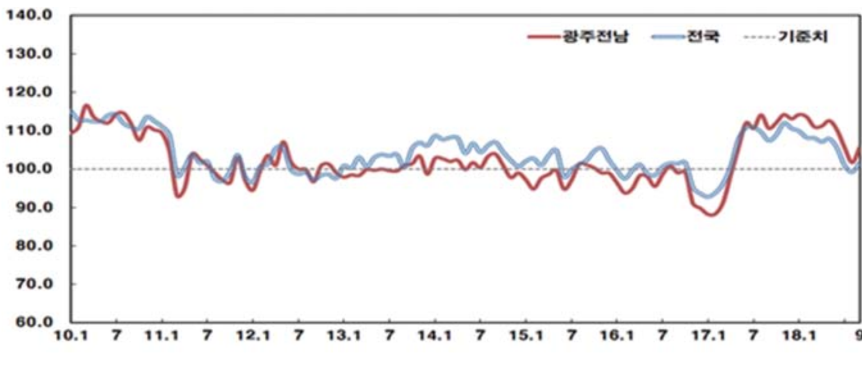
이와 함께 9월 중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현재 생활형편 및 생활형편 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각각 91과 98로 전월과 같았다.

가계수입 전망 CSI는 101로 3포인트 상승했고, 소비지출 전망 CSI는 114로 6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판단 CSI는 76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반면 향후 경기전망 CSI는 96으로 7포인트 상승했다.

취업기회 전망 CSI는 98로 1포인트 올랐고, 금리수준 전망 CSI는 124로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한국은행 제공)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현재가계저축 CSI는 90, 가계저축 전망 CSI는 93으로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가계부채 CSI는 107로 전월과 같고, 가계부채 전망 CSI는 101로 1포인트 상승했다.

물가 수준 전망 CSI는 139로 2포인트 하락했고, 주택가격 전망 CSI는 122로 9포인트 상승했다. 임금수준 전망 CSI는 124로 전월과 동일했다.

한편 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15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정해 100보다 크면 낙관적, 적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김영민 기자

니콘이미징코리아 'Z 시리즈' 전국 론칭

광학기기 전문기업 니콘이미징코리아가 광주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신제품 홍보에 들어간다.

니콘이미징코리아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Z 시리즈'의 출시를 기념해 오는 10일부터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전국 론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열리는 '니콘 디지털 라이브 2018'에 이어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Z 시리즈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일정은 오는 10일 광주를 시작으로 11일 대구, 13일 부산, 15일 울산, 16일 대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광주·전남 제조업체 수출전망 '흐림'

한국은행 설문 결과 보합·감소 60%이상 답변

광주·전남 올 하반기 수출 경기가 흐리게 전망됐다.

또 수출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환율 변동성 완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호남권 주요 제조업체 36개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및 2019년 수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합(33.3%) 또는 감소(27.8%) 예상업체가 전체 61.1%를 차지했다.

수출 증가 예상업체 비율은 38.9%로, 전년 동기(41.7%)와 비교해보면 2.9% 감소했다.

특히 수출증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수출단가 상승(12.5%)'과 '수출부진에 따른 기저효과(7.5%)' 등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져 지난해보다 각각 6.5%·12.5%씩 하락했다.

다만 '원화가치 하락'과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 등은 전반적인 수출 증가 전망요인 수치를 끌어올렸다.

이런 가운데 올해 3분기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 경기는 지난 2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18년 3분기 호남권 경기 동향'을 보면 3분기 경기는 2분기와 비슷한 보합세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보합,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 수준이었다. 자동차 생산은 미국시장 경쟁 심화 및 일부 차종(기아차 카렌스) 생산 중단으로 소폭 감소했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경기 개선 등으로 수요가 호조를 보였지만 주요 업체(롯데케미칼)의 정기 보수로 인해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석유·정제, 조선 생산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철강은 판매가격 상승 및 광양제철소 정기 보수 완료로, 가전은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판매 급증 등으로 생산이 소폭 늘었다. /김영민 기자

신협, 하반기 신입직원 공동채용 실시

전국 27개·53명 채용 은행권 채용모범 규준 반영

신협중앙회는 올 하반기 신입직원 공동채용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신입직원 공동채용규모는 전국 27개 신협에서 53명 내외로 채용한다. 채용지역은 서울, 부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강원 총 8개 지역으로 수신, 여신 등 신협 금융사무 업무 전반을 담당할 일반직을 뽑는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일반상식 및 선택과목(경영학, 경제학, 민법, 회계학 중 택 1), 면접전형(신체검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협 소재 지역 인재를 우대해 채용할 예정이다. 연령,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제한은 없다.

접수는 1일부터 5일까지 취업포털 '사람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15일, 필기전형은 20일 각 지역별 고사장에서 실시한다. 이후 신협별 최종 면접절차를 거쳐 11월14일에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채용절차는 '은행권 채용모범 규준'을 지침에 반영해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였다. 상반기에 이어 '전형 결과 공개서비스'를 통해 지원자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전형 결과 점수 및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볼 수 있다.

/길용현 기자

광주경진원 중기제품 판매전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열린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1일부터 7일까지 광주신세계 1층 문화행사공간, 12일부터 22일까지 와이마트 서구 물류도매유통센터에서 광주시 우수중소기업 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우수중소기업 및 상품은 지난 5월에 진행된 '2018 중소기업위크'의 구매담당자 유통상담회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대상자들로 구성됐다.

/길용현 기자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시와 함께 지역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나주 세지면 화탑마을에서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농협광주본부 도시가족 농촌체험 행사

농협광주본부가 '도시가족 주말농부 농촌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광주시와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지역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나주 세지면 화탑마을에서 진행됐다.

'도시가족 농촌체험'은 초등학생을 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자는 계절마다 영농·수확체험은 물론 농산물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추가 참가자 신청은 오는 13일과 27일까지이며,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등에서 접수 가능하다. /김영민 기자

대학생 취업 선호 1위 '공기업'

한경연 "대졸 신규 채용 환경 지난해보다 악화"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 유형은 공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4명 중 1명이 공기업 취업을 희망했고, 그다음이 대기업이었다.

또 대학생 5명 중 1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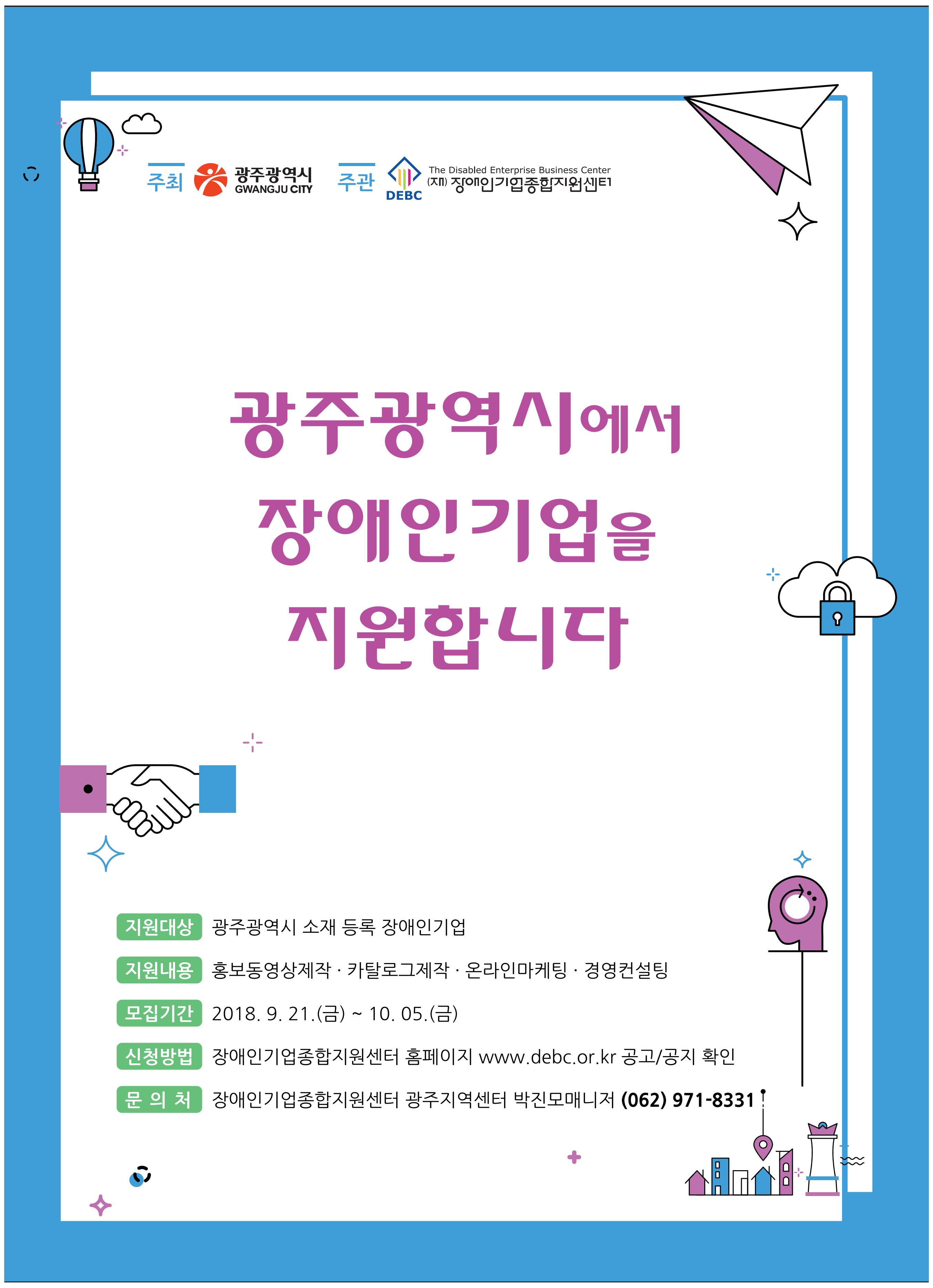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의 4년제 대학 재학생·졸업생 3,294명을 상대로 '2018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학생들은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에 대해 작년보다 어렵거나(41.1%) 작년과 비슷하다(36.1%)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은 4.1%에 그쳤고, 18.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경연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6.9%포인트 증가한 반면 '작년보다 좋다'는 답은 5.0%포인트 감소해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취업 환경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 유형은 '공사 등 공기업'이 25.0%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대기업'(18.7%), '중견기업'(14.2%), '정부'(13.0%), '외국계 기업'(7.7%), '중소기업'(6.6%), '금융기관'(3.5%) 순이었다.

/연합뉴스